

LA 산불 계속...시속 113km 강풍 예보에 진화 '최대 고비'

17만명 대피 경보...“상황 급변할 수 있어 대피령 확대 예상” 방화·실화 위험 지속돼...지난 이틀간 방화 행각 3건 적발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산불이 14일(현지시간)로 여드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강한 돌풍이 예보되면서 진화 작업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근래 LA에 잦아진 '샌타애나' 돌풍은 불씨를 수 킬로미터 먼 곳까지 날려 보낼 수 있어 주민들 모두 기존 산불의 급격한 확산이나 새로운 산불 발생 가능성에 높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추가 화재 위험 고조=미 기상청(NWS)은 전날 LA 카운티와 벤투라 카운티 일부 지역에 시속 13~15일)의 강풍을 예보하면서 '특별히 위험한 상황' (Particularly Dangerous Situation ; PDS)에 해당하는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더해 NWS는 이날 "극도의 화재 위험"을 경고하는 홍보 이미지를 제작해 배포했다.

NWS는 LA를 포함한 남서부 캘리포니아 지도에 적색경보 대상 지역과 '특별히 위험한 상황'인 지역, 화재에 취약한 날씨 여건을 보이는 지역을 표시해 안내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대피할 준비를 해라.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피하라"고 주의를 줬다.

NWS가 이날 오전 4시에 재차 발령한 강풍 경보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북-동북 산지 지역에서 평균 시속 약 48~65km의 북동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돌풍이 불 때는 바람의 시속이 약 113km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강풍 경보는 오는 15일 오후까지 유효하다.

아울러 NWS는 해당 지역의 습도가 8~15%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NWS의 기상학자 토드 홀은 강풍과 함께 극도로 건조한 상태가 결합돼 새로운 화재가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런 조건이 2~3마일(3~5km) 떨어진 곳까지 불씨를 퍼뜨리거나 불의 토네이도(불기둥)를 일으킬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현재 대피령(약 8만8000명)이나 대피 준비 경고

(8만4000여명)를 받은 주민은 총 17만여명으로, 이날 상황이 심각해지는 정도에 따라 대피 경보는 확대될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LA 카운티 보안관 로버트 루나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대피 준비를 하라는 경고를 받을 경우에도 대피령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즉시 집을 떠나기를 권고한다"면서 "대피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말했다.

◇진화 작업은 소폭 진전...시내 방화 시도 잇달아 '골치' =이날 강풍 경보는 전날 밤부터 발령됐지만, 다행히 간밤에는 산불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지난주 화재 초기 때와 같은 강한 바람은 불지 않았다.

LA 카운티 북단의 매직 마운틴 지역 등 현재 화재가 없는 일부 지역에서만 최대 시속 116km의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기상 예보관들은 현재 불길이 확산 중인 서부의 '펠리세이즈 산불' 지역과 동부의 '이튼 산불' 일대에서 이날 오후부터 바람이 다시 강해져 밤새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하루 동안 이들 산불 지역에서는 진화 작업이 진전을 이루면서 진압률이 소폭 높아졌다. 현재 펠리세이즈 산불이 17%, 이튼 산불이 3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피해 면적은 각각 96㎢, 57.1㎢로 전날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샌퍼넬도 벨리의 '허스트 산불'은 불길이 거의 잡혀 진압률 97%를 기록했으나, 전날 밤 벤투라 카운티의 옥스나드 공항 근처에서 추가로 산불('오토 산불')이 발생해 밤새 0.2km를 대었다.

전날 피해 지역 수색 과정에서는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24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실종 신고가 접수된 24명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밝혔다.

이번 산불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지역 내에서 방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짐 맥도널 LA경찰국장은 지난 12일 이후 LA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펠리세이즈에서 산불로 인해 파괴된 LA 지역 주택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에서 타오른 불로 대피령 또는 경고를 받은 사람은 17만명이 넘고 24명이 숨졌다. 또 1만2000개 이상의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됐으며, 1만41630ha 이상이 불에 탔다. /연합뉴스

시내에서 3건의 방화 행각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용의자 1명은 노스 할리우드에서 바비큐용 라이터를 이용해 어딘가에 불을 붙이다 시민 신고로 붙잡혔고, 다른 1명은 웨스트 벨리에서 근처 담불에 불을 지르다가 체포됐다. 서부 LA 지역에서는 거리의 한 쓰레기통에서 불길이 번졌는데,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 등을 통해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해 체포했다.

이들 3건 모두 경찰과 소방대가 신속히 대응해 불을 완전히 잡았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LA 보안관실은 산불 피해 지역을 순찰하면서 야간 통행금지 위반, 절도, 불법 드론 비행 등 혐의로 총 3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트럼프 취임식 펜스 48km '최고수위 보안'

군·경 2만5000명 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제4대 대통령 취임식 기간 워싱턴DC에 역대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가 이뤄진다.

대통령 경호를 전담하는 비밀경호국(SS)은 이번 취임식에 30마일(약 48km) 이상의 경호용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N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취임 선서와 연설이 이뤄지는 미 의회 의사당 주변에 이미 설치된 광범위한 경계선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SS가 주도한 그 어떤 행사 때보다 더 긴 것으로, SS는 검문소를 설치해 모든 참석자를 검색하는 한편 드론을 띄워 보안 구역을 감시한다.

마이크 맥클 SS 특수요원은 CNN에 "지난 취임식(인) 2021년에 비해 보안 계획이 좀 더 탄탄해졌다"며 "우리가 마련한 계획이 100% 확신을 갖고 있으며, 시민들과 경호 대상자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는 아울러 행사장 경호를 위해 2만5000명의 경찰관 등 법 집행기관 공무원과 군인을 현장에 배치한다. 한편, 이번 취임식 행사에는 약 25만명이 참석한다는 게 보안 당국의 예상이다. /연합뉴스

오랜 관습 깨고...미셸 오바마, 트럼프 취임식 불참

미셸 오바마 전 미국 영부인이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만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미국 정치권의 오랜 전통이지만

미셸 오바마는 아무런 설명 없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불참을 발표했다.

미셸 오바마는 지난주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거행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하와이에 머물렀다. 반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는 트럼프에게 패한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해 모든 현직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젤렌스키, 北 포로 영상 추가공개...“러 전쟁연장 위한 도구일 뿐”

부상 후 낙오 3~5일만에 생포...본인 신분증에 “러시아어라 못 읽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북한군 포로의 신문 영상을 엑스(X·옛 트위터)에 추가로 공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로 잡힌 북한 군인들과 우크라이나 조사관들 간의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세계는 러시아가 이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완전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은 완전한 정보 공백 속에서 자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러시아는 오직 이 전쟁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데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이 필요한 것은 오직 러시아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 진지를 수호하고 있는 모든 우리 전사에게도 감사드린다”며 “또한 우리의 생명과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전세계 모든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상 속 병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생포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개했던 북한군 2명 중 1명이다.

4분 16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북한군은 누워서 한국인 통역을 거쳐 우크라이나 조사관의 질문을

듣고 답했다. 조사관은 그에게 생포 경위, 가짜 러시아 신분증, 교육받은 교전수칙 등에 관해 물었다.

북한군 병사는 전투 과정에서 부상해 철수할 수 없었고, 숲에 들어가 3~5일간 혼자 있던 중 우크라이나군에 발각돼 차량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러시아 신분증에 사진이나 본인 이름이 쓰여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진은 없었고, 전부 러시아어로 돼 있어 이름 기재 여부도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 병사는 또 우크라이나군을 생포했을 때 종이에 '집'과 '총'을 그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뒤, 집을 고르면 보내주고 총을 고르면 죽이라고 교육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신 학 과	30 5
인문사회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예능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